

해남 우항리 공룡 화석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재



자연사 분야 최초...과학기술자료 가치 인정받아 백악기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 공존 중요 증거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의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이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재되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관리를 지원해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연사 분야로는 처음으로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해남군/해남공룡박물관)과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목포시/목포자연사박물관)이 등록됐다.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은 한반도 남부가 백악기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로서 공룡과 익룡, 새가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약 9천만년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생물 화석군으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고(最古)로 알려진 미국 예오세 지방의 신생대 지층보다 4천만년 정도 앞선 중생대 백악기 지층으로 밝혀졌다. 해안선 곳곳에서 세계 최대(25~30cm) 크기의 움푹 패인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물갈퀴새 화석은 주위 퇴적암 절벽에 1천개 이상 찍혀 있다. 1998년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7년 국내 최대규모 공룡관련 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다.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재됨에 따

라 천연기념물로서의 희귀성은 물론 후대에 보전해야 할 과학기술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또한 해남공룡박물관은 천연기념물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동시에 보유한 박물관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크게 높게 되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은 백악기 해남이 공룡과 익룡 물갈퀴새들이 공존했던 지상 낙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 자연사 자료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석지 보존과 관리를 통해 후대에 그 가치를 전승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35억원 조기 지급

마을별 순회 지급으로 60만원 전액 지급...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3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군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 2월 26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농협에서 마을 회관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지급했다.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60만원을 조기 지급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신청자 6,156명 중 적격 여부 검증을 통해 5,859명에게 5일까지 마을에서 현장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어민은 마을별로 지정된 배부일에 맞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8일부터는 주소

지 관할 지역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마을 방문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 등 농어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영농철 이전에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전액 일시 지급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전북 공정 거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하 가격 안정·덤 문화 개선 등 공정 생산·유통 문화 확립



완도군은 최근 완도군 전북 생산·유통단체와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한국전북생산자완도협회, 완도전북주식회사, (사)한국전북유통협회 (사)남도전북연합회, (사)한국전북수출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협약 내용은 전북 출하 가격 안정과 덤 문화 개선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

를 위한 거래명세서 주고받기, 공정한 전북 가격 지키기, 덤 요구도 주지도 받지도 않기 등 전북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전라북도 실현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면 생산자와 유통 업체 간의 전북 거래 가격 안정과 덤 거래 발생을 줄이는 등 공정한 생산·유통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1인 가구 증가,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북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북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쌀귀리', 톡톡 튀는 마케팅 홍보 시동

강진군은 대표 특산품인 쌀귀리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내 대표 여행사 및 여행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독특한 마케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쌀귀리를 이용한 떡, 빵 등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유통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날씨가 온화해 쌀귀리 재배 적지인 강진은 2010년부터 이어진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쌀귀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219농가, 609ha에서 연간 1,850톤을 생산하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주산지이다. 강진=김영일기자

MOU맺은 국내 여행사 쌀귀리 꾸러미 제품 제작 한국형 레시피 책자 발송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과 MOU를 맺은 국내 대표 여행사 및 여행업 대표자중 SNS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점을 파악하고, 강진에서 중점 육성 중인 쌀귀리 판매 흥

보에 팔을 걷은 것이다. 먼저 쌀귀리 원곡과 선식, 분말, 고추장 등 쌀귀리 꾸러미 제품을 만들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귀리 활용 한국형 레시피 개발 책자와 함께 발송을 완료했다. 군은 강진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매월 꾸러미 상품을 발송하고,

장흥군,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운영 시작

장흥군은 3월부터 2021년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은 올해 9과목에서 총 8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목공 과목 외에도 서각, 우드카빙, 우드베닝(낙화), 목선반 등 새로운 과목을 더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목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군민들

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했다. 3일까지 생활목공 초급, 서각, 우드카빙, 우드베닝(낙화) 등 4과목 총 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흥군민이며 전통 공구, 장비, 수강료 등이 지원된다. 장흥군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목공예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일정 수준의 목공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 목공작가와 연계 교육을 통해 장흥 지역 목공 교육과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